

유리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필요



◀ 정해영 대표이사

안성유리공업(주)을 경영하고 있는 정해영 대표이사는 유리업계에 새로운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장질서확립에도 관심이 많다.

“유리업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되는 분야다보니 처음 경영을 시작하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 사장은 업계에 과다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가격 받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규모가 영세한 곳도 많을 뿐더러 PET나 캔의 등장으로 유리병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가격은 80년대 수준이니 이 문제의 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할만큼 정 사장의 제품에 대한 제가격받기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업계 전반에 이런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유리는 100% 재활용이 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생각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정 사장은 식음료 용기로는 청결성이 우수한 유리병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IMF 이후 영세업체들이 정리가 되고 시장이 안정되면서 중단되었던 제2로의 가동을 시작한 안성유리는 이를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안착했다.

정 사장은 “IMF는 어찌보면 유리업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영자들의 의식전환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경쟁만을 일삼던 동업계간에 협조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업계를 밝게 전망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던 안성유리공업(주)을 현재의 위치에 올려 놓을 있을 만큼 수처에 대한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정사장의 올 목표는 자립경영 정착이다.

“유리병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인식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유리병 경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 사장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 업계의 힘을 실어 정책 입안과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인한 추진력으로 안성유리공업(주)을 이끌고 있는 정 사장의 모습에서 자립경영 정착이라는 올 목표가 달성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다. ☐

이선경 기자